

## 여성과 일, 여성을 위한 채용 전략과 가족친화적 경영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밝힌 2007년 상반기(전국)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027천명에 이르며 중졸이하 저학력 층에서는 감소하고 고졸이상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571,675명이며, 이중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은 201,3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청의 조사에서 대전광역시의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37,986명은 구직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26,766명은(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여성 고용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대전시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 중 하나이다.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경력과 욕구를 가진 여성 취업자와 구인 사업체를 연결해 주기 위한 맞춤형 채용전략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9월 6일 '2007 대전 여성 취업 만남의 장'을 열었다. 100여개의 구인업체에서 600여명의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이 행사

는 취업관, 창업관, 교육정보관, 이벤트관, 신직업관 등으로 나뉘어 33개의 홍보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취업관에서는 고객상담원(텔레마케터) 175명, 관리교사 50명, 사무직 및 웹디자이너 45명 등 모집 분야별 취업상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웨딩 플래너, 병원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 일리스트, 바리스타 등의 직업도 소개하여 새로운 취향과 경향도 반영하였다.

대전광역시뿐 아닌, 많은 지자체가 신선한 전략,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성 취업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과 일을 논의하는데 있어 최근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사항은 가족친화적 조직 혹은 기업 경영에 관한 것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10월 주최한 제5차 2007가족공동체포럼에서는 여성의 취업 이후의 문제, 즉 여성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기업 경영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탄력적 출퇴근제도, 재택근무, 집중근로시간 프로그램, 직무공유제, 시간제근무, 경력휴가제 등이 가족친화적 경영의 실행 제도로 제안되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업 내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 휴직제의 활성화 및 남성 육아 휴직의 실질적 정착 등을 제안하였다.

일을 원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구직 활동 지원의 다각화와 함께, 취업 후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 지원 제도 및 가족 친화적 경영 대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논의가 요구된다.